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이해: 성격, 정서, 적응, 인터넷 사용동기와 중독을 중심으로

박 지 연 양 난 미 송 미 경[†]
경상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실태를 알아보고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성격특성, 부정적 정서, 대학생활 적응, 인터넷 사용동기 그리고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집단과 3시간 이상인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남녀 대학생 433명이었고, 연구도구로는 인터넷 사용동기 척도, 대학생용 인터넷 중독 척도, 5요인 성격특성 척도, 소외 척도,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 분석, 다변량분석 및 사후검증, 입력(Enter) 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집단은 2시간 미만인 집단에 비해 신경증과 소외 정도는 높았고,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은 낮았으며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낮고 인터넷 중독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인터넷 중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적응, 인터넷 사용동기의 집착동기였으며 성적동기는 2시간 미만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대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실태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써 그들이 인터넷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돕기 위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대학생, 인터넷 중독, 인터넷 사용동기, 성격특성, 부정적 정서, 대학생활 적응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송미경,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E-mail : songdouce@swu.ac.kr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멀티미디어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탄생시켰고, 인터넷은 기술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에서 급속히 발전되어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결정적인 수단인 인터넷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교육정보화 정책과 인터넷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최근 들어 인터넷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장동균, 2002).

일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2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인터넷 이용자수는 2011년보다 94만 명 증가한 3,812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10-20대 젊은 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99%이상으로 높았는데, 10대 99.9%, 20대 99.9%, 30대 99.5%로 30대 이하의 거의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이렇게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역기능이 인터넷 중독이다.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사용이 지나쳐서 일상생활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Goldberg(1996)가 처음 공식적으로 천명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Goldberg(1996)는 인터넷 중독을 임상적으로 중요한 장애나 고통을 유발하는 비적응적인 인터넷 사용형태로 정의하였고 Young(1996)은 중독성 물질이 없는 충동조절 장애로 정의하고

진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과 관련된 활동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이로 인해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적응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인터넷 중독에 대해 국내에서는 1998년부터 서서히 연구가 시작되었고 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개인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외의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은 주로 10대 혹은 전체적으로 낮은 연령대일수록,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개인 특성 측면에서는 우울, 불안, 충동성, 공격성, 낮은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 감각추구성향, 강박성향, 내향성, 대인관계 단절,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등 다양한 변인들과 인터넷 중독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박준혁, 김정범, 류설영, 2006).

인터넷 중독은 사회 환경적 요인, 인터넷 자체의 속성, 성격적 특성, 뇌신경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요인 중에서 성격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똑같이 인터넷을 사용하더라도 성격적인 차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중독에 이를 만큼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거나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생활을 적절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이금화, 2010). 이처럼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취약한 특정한 성격특성의 사람들이 있다고 간주하는 병리적 인터넷 사용자의 성격특성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이혜경, 2010, 재인용). 개인차를 설명해주는 성격특성 이론 중에서도 5요인 성격모델은 많은 중단적 연구와 다양한

나라에서 연구된 결과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립된 모델이다. 5요인 성격모델은 여러 중독 장애 연구에서 사용되었는데 연구 결과 다양한 물질사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높은 신경증 경향, 낮은 성실성 그리고 낮은 친화성이라는 공통적인 성격특성을 보였다(이혜경, 2010, 재인용). 5요인 성격모델과 인터넷 중독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특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병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며 심리행동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내향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덜 친화적인 사람들은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취약했다. 그리고 고독감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Aa et al., 2008). 국내 연구에서도 병리적 인터넷 사용자들은 대인관계에 예민했고(고유진, 채규만, 2004), 혼자 생각이 많고 상상이나 공상을 즐기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성이 약하고 단체생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얻었다(최경희, 2004). 또한 온라인 게임(MMPRPG)을 하는 사람들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친화성, 신경증, 외향성뿐만 아니라 성실성과 관련이 있는 반면(Peter & Malesky, 2008), 블로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방성이 높다고 한다(Guadagno et al., 2008). 또한 이금화(201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생의 성격특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성실성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쳤고, 신경증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실성은 다른 신경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터넷 중독 수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윤혜연(2008)의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은 신경증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외향성, 개

방성, 친화성, 성실성과는 모두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 결과 인터넷 중독 위험군을 분류하는 성격특성은 신경증이며, 인터넷 중독 비위험군을 분류하는 성격특성은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개방성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예민하며 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욕구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느껴 인터넷 중독 위험군으로 빠질 위험이 더욱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터넷 중독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다양하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고립 및 철수이다(김광웅, 유미숙, 이지향, 2004). Goldberg(1996)는 인간이 현실세계에서 적응하지 못할수록 가상공간에 빠져 인터넷 중독이 되기 쉽다고 제안하였다. Kraut 등(1998)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우울증, 외로움, 가족 구성원과 의사소통의 감소, 사회적 위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병리적 인터넷 사용자들이 고립감 및 고독감을 더 가지며, 이것이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Davis, 2001). 손정락과 강희양(2007)의 인터넷 중독과 게임중독을 비교한 논문에서 특정한 게임 중독보다 일반적인 인터넷 중독에 정서 관련 변인이 더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네트워크에서 채워질 수 없는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Leung, 200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관련 연구에서도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일수록 소외감, 고립감,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며(황혜리, 류수정, 2008), 사회적으로 위축되고(이형하, 2003), 학교생활에 잘 대처하거나 적응하지 못하고(서미아, 2007), 문제해결능력도

낮았다(박지선, 2010, 재인용).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많은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나타내게 되며 이는 사회 및 학교생활 부적응과 연결이 된다.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최은구, 2007), 심리학적 차원에서 본 적응이란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욕구를 저해하는 환경적 장애요인을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구혜숙, 1994). 인터넷 중독과 적응의 문제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 집단은 비중독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문제 상황에서 협상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더 낮으며(고유진, 2001; 이소영, 2000; 윤혜연, 2008, 재인용), 현실구분 장애와 현실도피, 원만치 못한 대인관계 등의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이선애, 2004), 음란물을 자주 접촉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부적응 및 친구관계에서 소외감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윤, 이명화, 2003). 특히 인터넷 중독은 학교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임영희, 2003) 인터넷 중독의 학생들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부적 상관을 지닌다고 보고하였다(백대준, 2002; 윤혜연, 2008, 재인용).

또한 중독행동과 관련된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인터넷 사용 동기가 인터넷 사용 실태와 인터넷 중독의 예측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동기'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으로, 행동의 방향과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기는 어떤 목표를 향한 행동을 유발하거나 지속하게 하는 내적 과정 또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이홍표, 2002; 광웅신, 2006). 인터넷 사용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재홍(2004)은 대인관계, 감각추구와 정보획득, 자아변화, 현

실회피, 분리 독립 등을 인터넷 사용 동기 욕구로 보았고 천명재와 김창대(2005)는 성취와 성장, 대인관계, 즐거움, 정체성, 현실회피, 성, 시간 보내기 등으로 보았다. 또한 이진성(2009)은 인터넷 이용 동기의 하위요인인 오락 휴식, 이해인지, 사회적 동기, 현실회피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외국 연구로는 Korgaonkar와 Wolin(1999)이 인터넷 사용 동기로 사회적 도피주의, 정보동기, 상호작용적 통제, 사교, 경제적 동기의 5요인을, Papacharissi와 Rubin(2000)이 대인관계 효용, 시간보내기, 정보 검색, 편의, 오락의 5요인으로 인터넷 사용동기를 구성하였다(광웅신, 2006, 재인용). 이러한 연구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인터넷 사용동기 척도를 개발, 타당화 연구를 한 광웅신(2006)은 인터넷 사용동기를 정보동기, 소통동기, 경험동기, 중독동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정보동기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를 구하려는 것을 의미하고, 소통동기는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려는 것을 의미하며, 경험동기는 인터넷을 통해 자극과 스틸을 얻고 게임과 같은 지표로 자신의 능력을 증대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중독동기는 인터넷을 통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단지 인터넷 사용에 집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혜숙(2004)에 따르면 중독동기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동기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와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한다. 중독동기는 다른 인터넷 사용동기와는 달리 인터넷 사용을 통하여 괴로움과 현실의 고통을 잊고, 행복감을 기대하며,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집착으로 인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곽웅신, 2006). 즉 중독동기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사용자가 올바르지 못한 인터넷 사용을 하고 있고, 인터넷 사용을 통한 기대와 욕구가 건전하지 못한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중독동기를 가진 청소년들은 점차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인터넷 사용을 줄이거나 멈출 수 없는 내성과 금단현상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곽웅신, 2006; 신수정, 2007)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중독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예방노력과 관심이 어느 정도는 기울여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20대들의 인터넷 사용률은 99.9%로 거의 모든 20대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성인들에 대한 보호나 치료적인 개입의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에 대해 위험집단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해 관심의 집중이 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대학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학내에서의 인터넷 사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학문적 목적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목적으로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학교 외에 PC방이나 집 등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인에 대해서는 모든 PC방이 24시간 동안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대학생들은 인터넷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김현진, 2002; 최은구, 2007). 또한 대학생은 중고생 시기까지 부모나 교사로부터 받아오던 통제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다. 대학생에게는 짜여진 일정이거나 매일매일 과제를 부여받고 행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일과를 계획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자율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대학생이 되어 갑작스럽게 부여받게 되는 자유로 인해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인터넷 사용의 자유도 포함된다. 집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부모님의 통제보다는 자신의 자유를 더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자취를 하는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통제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에 달려있으므로 짜여진 일정에서 벗어나 시간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은 30대 이상의 성인에 비하여 아직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에 빠져들 수 있다. 대학생들은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형성될 수 있는 광대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탐색하게 되었고, 최근 컴퓨터 활용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대학생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다(임은미 외, 2007, 재인용).

이와 같이 인터넷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률과 통제와 관련하여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위험성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대학생 인터넷 관련 연구들은 아동, 청소년 대상 연구에 비해 연구의 수효도 매우 적고 연구의 주제범위도 제한되어 있다. 즉,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 개발이나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인터넷 중독과 다른 심리적 속성들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들도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학생의 경우,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에 앞서 인터넷 사용에 관한 연구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과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터넷 사용과 이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하여 이제까지 연구들은 전체 인터넷 사용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가정하고 전체 집단에서 변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개별집단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학생집단을 몇 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인터넷 중독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인터넷 사용 시간에 따라 대학생 집단을 나누어 보고 개별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을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반 대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에 이르지 않고, 건강하게 인터넷을 사용하여 자신을 계발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돕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인터넷 사용 시작 시기, 하루 평균 사용시간, 최장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사용 장소, 인터넷 중독정도 등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 성격특성, 부정적 정서, 대학생활적응 정도, 인터넷 사용

동기, 인터넷 중독정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집단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성격특성, 부정적 정서, 대학생활 적응 정도, 인터넷 사용동기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3개 대학교와 경남 소재 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449명의 대학생의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는 2012년 4월~5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6부를 제외한 433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433명의 평균연령은 21.92($SD=2.38$)이었고, 남학생은 218명(50.3%), 여학생은 212명(49.0%), 무응답 3

표 1.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정보($N=433$)

		빈도	퍼센트(%)
성별	남	218	50.3
	여	212	49.0
	무응답	3	0.7
학년	1	83	19.2
	2	117	27.0
	3	137	31.6
	4	94	21.7
	무응답	2	0.5
	전공	인문계열	227
자연계열		181	41.8
예술계열		12	2.8
무응답		13	3.0

명(0.7%)이었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83명(19.2%), 2학년 117명(27.0%), 3학년 137명(31.6%), 4학년 94명(21.7%), 무응답 2명(0.5%)이었으며, 전공은 인문계열 227명(52.4%), 자연계열 181명(41.8%), 예술계열 12명(2.8%), 무응답 13명(3.0%)이었다.

측정도구

대학생용 인터넷중독 척도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오원이 등(2005)이 개발한 성인 인터넷 사용자기보고 척도(A-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상세계 지향, 긍정적 기대, 내성 및 몰입, 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의 4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은 점수는 인터넷에 더 많이 중독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점수의 분류 및 기준점수는 표 2와 같다. 오원이(2005)의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7로 나타났으며, 한기홍(2008)의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는 전체=.90, 가상세계 지향=.74, 긍정적 기대=.76, 내성 및 몰입=.80, 인터넷에 대한 자기 인식=.79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전체=.92, 가상세계 지향=.81, 긍정적 기대=.81, 내성 및 몰입=.79, 인터넷에 대한 자기 인식=.82로 신뢰로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5요인 성격특성 척도

대학생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Goldberg(1999)가 개발한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를 유태용, 이기범, Ashton(2004)이 번안(이영란, 2006, 재인용)하고 이영

란(2006)이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IPIP는 개인의 성격을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며 각 요인당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이며 반대 문항에 대하여 역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성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영란(2006)의 연구에서 IPIP 척도의 *Cronbach's α*는 신경증=.89, 외향성=.86, 개방성=.80, 친화성=.81, 성실성=.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신경증=.86, 외향성=.88, 개방성=.75, 친화성=.80, 성실성=.76으로 나타났다.

소외

대학생들이 느끼는 고립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선우(2002)가 개발한 소외 척도 20문항 중 고립감 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소외척도는 무력감 8문항, 규범상실 4문항 및 소외감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소외감을 직접 측정하는 고립감 하위요인만을 사용하였다. 고립감은 개인이 집단의 표준으로부터 고립되거나 집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과의 관계 및 자기규정에 있어 소외함을 느끼는 정도이다(김선우, 2002).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감정을 느끼는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김선우(2002)의 연구에서 고립감의 *Cronbach's α*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 척도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Baker 등(1984)이 개발한 대학생 적응도검사(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이

표 2. 인터넷 중독 척도의 분류 및 기준점수

분류 및 기준점수	설 명	치료적 접근
일반 사용자군	인터넷을 자신의 흥미와 욕구,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나면 지체하기 않고 인터넷 접속을 종료한다. 필요에 의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당장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어도 그다지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참고 기다릴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정서, 행동, 직업, 대인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건전한 사용자들이 속하는 유형이다.	불필요
경계선 점수	A-척도 31점	
잠재적 위험 사용자 I 군	목적 외에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현재 뚜렷한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궁금함, 답답함, 약간의 짜증을 경험한다. 꼭 필요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수시로 메일/방명록을 확인하고 속도가 느리면 기다리지 못하고 재접속하거나 반복클릭을 하는 등 인내심이 부족해진다. 인터넷을 사용하느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지만 다소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어 늦어지거나 퇴근 후 남아서 일을 하게 되는 등). 혼자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 인터넷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단계이다.	관리 요망 건강한 인터넷 사용과 사회적, 직업적 기능 수행을 위해 효율적인 시 관관리가 필요함 니다.
경계선 점수	A-척도 54점	
잠재적 위험 사용자 II 군	현실의 대인관계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사이버 세계가 대인관계의 중심이 되며, 이러한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고(예: 학교/직장에서 경고를 받거나 지각, 지연) 주변 사람들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인터넷 사용에 대한 걱정과 염려, 잔소리를 표현한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은 회피하게 되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 초조, 짜증, 분노를 경험하며 수면 부족, 피로감, 급진적 소비가 증가한다. 심지어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 합리화하고 자신의 인터넷 사용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하지만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사용이전에 비해 뚜렷한 생활의 변화가 생기고 인터넷을 조절하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이다.	상담 요망 정신건강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함 니다.
경계선 점수	A-척도 67점	
고위험 사용자군	인터넷 사용을 자기의 의도대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로, 대부분의 시간을 인터넷에서 보낸다. 식음을 전폐하고 씻지도 않고 인터넷에 몰두하고 며칠씩 외박을 하기도 하며, 심지어 현실과 사이버 세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란을 경험한다. 인터넷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심각한 불안, 초조, 짜증, 분노를 경험하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보이는 등,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 가족갈등이나 대인관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학사경고를 받거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등, 사회생활에 뚜렷한 장애가 있다. 현실생활 보다는 인터넷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며 하루 종일 인터넷에 빠져 있는 상태로 전문적인 치료가 시급한 단계이다.	집중치료 요망 전문 치료기관에서 인터넷 병적 사용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 합니다.

주. 경계선 점수(기준점수)는 그 점수부터 상위집단으로 분류함을 의미.

윤정(1999)이 수정,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의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윤정(1999)의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 척도의 *Cronbach's α*는 .85였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대학생활적응 척도의 *Cronbach's α*는 .79였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는 학문적 적응=.58, 사회적 적응=.59, 정서적 적응=.74, 신체적 적응=.42, 대학에 대한 애착=.72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 동기 척도

다차원적인 인터넷 사용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곽웅신(2006)이 개발한 인터넷 사용 동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터넷 사용 동기 척도는 자극추구동기, 숙달동기, 상호작용동기, 정보동기, 집착동기, 도피동기, 표현동기, 성적동기와 같은 인터넷 사용 동기 8요인을 측정하는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인터넷 사용동기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8개 요인들은 경험동기, 소통동기, 중독동기의 상위 3요인을 구성하는데, 경험동기는 자극추구동기, 숙달동기 및 성적동기로 구성되며 인터넷으로 자극을 얻거나 인터넷을 경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동기이다. 소통동기는 상호작용동기, 정보동기 및 표현동기로 구성되며 인터넷을 매개로 서로 간에 소통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중독동기는 집착동기와 도

피동기로 구성되며 인터넷을 도피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동기 및 인터넷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없음이 반영된 동기이다(곽웅신, 2006). 곽웅신(2006)의 연구에서 각 요인의 *Cronbach's α*는 자극추구동기=.81, 숙달동기=.92, 상호작용동기=.82, 정보동기=.72, 집착동기=.80, 도피동기=.83, 표현동기=.84, 성적동기=.7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각 요인의 *Cronbach's α*는 자극추구동기=.80, 숙달동기=.91, 상호작용동기=.79, 정보동기=.74, 집착동기=.75, 도피동기=.79, 표현동기=.84, 성적동기=.78로 신뢰로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연구문제를 검증하기에 앞서 각 변인들 간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분석을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 집단을 나눈 후 성격특성, 부정적 정서, 대학생활적응 정도, 인터넷 사용동기, 인터넷 중독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통계치로는 양병화(2011)의 제안에 따라 Wilks' Lambda값을 제시하였다. Wilks' Lambda는 총분산 중 집단내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0에 가까울수록 집단에 따른 차이가 크음을 의미한다(성태제, 2011). 그리고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으로 Scheffe-test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사용집단과 3시간 이상인 사용집단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독

립변수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입력 (Enter)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는 SPSS 18.0이 사용되었다.

결 과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실태

인터넷 사용 시작시기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 시작시기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고학년의 비율이 각각 36.0%, 35.6%로 대학생의 3분의 2정도가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인터넷을 처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다음으로 대학생들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

용시간을 살펴보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학생이 전체의 31.6%,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학생이 전체의 31.4%로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은 0.9%로 나타났다.

최장 인터넷 연속사용시간

표 5를 보면 대학생들이 응답한 최장 인터넷 연속 사용시간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시간 이상 15시간미만(28.4%), 0시간 이상 5시간 미만(20.1%) 순이었다. 30시간 이상에는 50시간, 72시간, 96시간, 100시간이라는 응답을 한 학생도 있어 꽤 긴 시간동안 한 자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

표 3.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 시작시기 학년별 분석

	인터넷 사용 시작시기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대1	대2	대3	대4	무응답	전체	
빈도	15	12	38	36	58	60	84	49	23	22	9	7	11	1	1	0	7	433	
(%)	(3.5)	(2.8)	(8.8)	(8.3)	(13.4)	(13.9)	(19.4)	(11.3)	(5.3)	(5.1)	(2.1)	(1.6)	(2.5)	(0.2)	(0.2)	(0.0)	(1.6)	(100)	
	65(15.0)						154(35.6)			156(36.0)			38(8.8)			13(3.0)			

표 4. 대학생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분석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무응답	전체
	전혀 사용하지 않음	0-1 시간 미만	1-2 시간	2-3 시간	3-4 시간	4-5 시간	6-7 시간	7-8 시간	8-9 시간	9-10 시간	10 시간 이상			
빈도	0	53	137	136	43	39	12	7	0	2	4	0	433	
(%)	(0.0)	(12.2)	(31.6)	(31.4)	(9.9)	(9.0)	(2.8)	(1.6)	(0.0)	(0.5)	(0.9)	(0.0)	(100)	

표 5. 대학생의 최장 인터넷 사용시간 분석

	최장 인터넷 사용시간							무응답	전체
	0-5시간 미만	5-10시간 미만	10-15시간 미만	15-20시간 미만	20-25시간 미만	25-3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빈도	87	157	123	15	26	7	13	5	433
(%)	(20.1)	(36.3)	(28.4)	(3.5)	(6.0)	(1.6)	(3.0)	(1.2)	(100)

생들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 사용 장소

인터넷을 어디에서 주로 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들은 집에서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장소의 비율은 집이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학교/아르바이트 장소(12.7%), PC방(3.7%), 기타(1.2%), 공공시설(0.2%)순이었다.

인터넷 중독정도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정도를 오원이(2005)의 분류기준에 의해 분류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인터넷 사용에 있어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 II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은 433명 중 27명(6.3%)으로 집단을 나누어 비교하기에 표본 수의 차이가 크므로 중독정도의 점수를 이용,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오원이(2005)의 분류기준을 따랐다. 인터넷 중독정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표 6.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장소 분석

	인터넷 사용장소						전체
	집	학교/ 아르바이트 장소	PC방	공공시설	기타	무응답	
빈도	354	55	16	1	5	2	433
(%)	(81.8)	(12.7)	(3.7)	(0.2)	(1.2)	(0.4)	(100)

표 7.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정도 분석

	인터넷 중독정도							전체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 I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 II군	고위험 사용자군				
	20-30점	31-37점	38-45	46-53	54-59	60-66	67이상	
빈도	92	83	127	104	18	7	2	433
(%)	(21.2)	(19.2)	(29.3)	(24.0)	(4.2)	(1.6)	(0.5)	(100)

잠재적 위험 사용자 I 군으로 433명 중 314명의 학생들이 해당 수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일반 사용자군(92명), 잠재적 위험 사용자 II군(25명), 고위험 사용자군(2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성격특성, 부정적 정서, 대학생활적응 정도, 인터넷 사용동기, 인터넷 중독정도

분석 결과 빈도와 퍼센트를 기준으로 삼분

표 8.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각 척도의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N=433)

		2시간 미만		2시간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격특성	신경증	2.82	.59	2.92	.66	3.06	.66	2.91	.64
	외향성	3.38	.61	3.30	.63	3.08	.72	3.28	.66
	개방성	3.30	.46	3.32	.47	3.26	.54	3.30	.48
	친화성	3.53	.47	3.51	.51	3.29	.58	3.46	.52
	성실성	3.37	.49	3.17	.51	3.08	.56	3.23	.53
부정적 정서	소외	1.85	.60	1.90	.64	2.26	.68	1.96	.65
대학생활 적응	학문적 적응	3.07	.72	2.97	.65	2.80	.67	2.97	.69
	사회적 적응	3.48	.62	3.41	.61	3.13	.66	3.37	.64
	정서적 적응	3.54	.71	3.35	.76	3.14	.73	3.38	.75
	신체적 적응	3.31	.56	3.10	.59	3.08	.55	3.19	.57
	대학에 대한 애착	3.29	.73	3.26	.72	3.06	.76	3.22	.74
인터넷 사용동기	자극추구동기	1.85	.60	1.93	.58	2.09	.69	1.93	.63
	숙달동기	1.70	.72	1.82	.80	2.11	.87	1.84	.80
	상호작용동기	2.59	.63	2.75	.60	2.60	.58	2.64	.61
	정보동기	3.08	.51	3.26	.47	3.09	.53	3.14	.51
	집착동기	1.87	.52	2.15	.54	2.35	.62	2.08	.58
	도피동기	1.72	.55	1.78	.49	1.96	.63	1.80	.56
	표현동기	2.27	.71	2.47	.61	2.28	.68	2.33	.68
	성적동기	1.38	.49	1.41	.46	1.50	.51	1.42	.49
인터넷 중독	가상세계지향	1.56	.47	1.66	.47	1.92	.58	1.68	.52
	긍정적 기대	1.75	.61	1.89	.59	2.05	.67	1.86	.63
	내성 및 몰입	2.19	.58	2.47	.54	2.72	.55	2.41	.60
	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	1.69	.62	1.99	.68	2.22	.77	1.92	.71
사례수		190		136		107		433	

표 9. 성격특성, 부정적 정서, 대학생활적응, 인터넷 사용동기, 인터넷 중독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																			
2	-.18**	-																		
3	-.06	.45**	-																	
4	-.17**	.47**	.39**	-																
5	-.28**	.32**	.26**	.42**	-															
6	.40**	-.45**	-.26**	-.42**	-.34**	-														
7	-.25**	.29**	.18**	.22**	.33**	-.30**	-													
8	-.36**	.44**	.21**	.40**	.28**	-.52**	.35**	-												
9	-.67**	.14**	.02	.13**	.16**	-.39**	.37**	.41**	-											
10	-.45**	.12**	.03	.08	.23**	-.30**	.19**	.34**	.57**	-										
11	-.36**	.21**	.13**	.24**	.22**	-.29**	.53**	.47**	.47**	.26**	-									
12	.08	-.14**	.07	-.01	-.09	.22**	-.08	-.10*	-.12*	-.13**	-.07	-								
13	-.06	-.12*	.04	-.06	-.19**	.11*	-.10*	-.03	-.01	-.09	-.00	.60**	-							
14	.18**	.16**	.12*	.32**	.05	-.11*	.06	.08	-.16**	-.16**	.05	.09	-.08	-						
15	.08	.09	.16**	.21**	.13**	-.12*	.06	.15**	-.05	-.05	.03	.09	-.14**	.37**	-					
16	.35**	-.12*	.05	-.07	-.23**	.25**	-.15**	-.17**	-.36**	-.26**	-.18**	.38**	.43**	.23**	.16**	-				
17	.32**	-.17**	-.04	-.08	-.13**	.34**	-.13**	-.28**	-.38**	-.22**	-.22**	.57**	.23**	.23**	.03	.60**	-			
18	.19**	.14**	.15**	.23**	.06	-.02	.06	.05	-.17**	-.15**	.02	.41**	.05	.65**	.39**	.39**	.42**	-		
19	.08	-.13**	.02	-.09	-.08	.27**	-.08	-.13**	-.07	-.07	-.05	.62**	.49**	.03	-.10*	.47**	.50**	.24**	-	
20	.34**	-.16**	-.04	-.12*	-.25**	.27**	-.20**	-.23**	-.42**	-.25**	-.23**	.52**	.36**	.17**	.07	.74**	.60**	.33**	.49**	-

주. 1. 신결함, 2. 외향성, 3. 개방성, 4. 친화성, 5. 상인성, 6. 소외, 7. 학문적 적응, 8. 사회적 적응, 9. 정서적 적응, 10. 신체적 적응, 11. 대학에 대한 애착, 12. 자
 극추구동기, 13. 숙달동기, 14. 상호작용동기, 15. 정보동기, 16. 집착동기, 17. 도피동기, 18. 표현동기, 19. 성격동기, 20. 인터넷 중독
 * $p < .05$, ** $p < .01$

표 10.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각 척도의 하위요인별 차이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 결과

독립 변수	Wilks의 람다	종속변수	단변량F	자유도	유의 확률	η^2	사후검증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	.75 ($p=.000$)	성격 특성	신경증	4.66	2/433	.01	.02	a<c
			외향성	7.49	2/433	.00	.03	a · b>c
			개방성	.45	2/433	.64	.00	
			친화성	7.97	2/433	.00	.04	a · b>c
			성실성	12.10	2/433	.00	.05	a>b · c
		부정적 정서	소외	15.86	2/433	.00	.07	a · b<c
		대학 생활 적응	학문적 적응	5.34	2/433	.01	.02	a>c
			사회적 적응	10.94	2/433	.00	.05	a · b>c
			정서적 적응	10.47	2/433	.00	.05	a>c
			신체적 적응	8.29	2/433	.00	.04	a>b · c
			대학에 대한 애착	3.62	2/433	.03	.02	a>c
		인터넷 사용동기	자극추구동기	5.20	2/433	.01	.02	a<c
			숙달동기	9.65	2/433	.00	.04	a · b<c
			상호작용동기	3.13	2/433	.05	.01	
			정보동기	5.57	2/433	.00	.03	a · c<b
			집착동기	27.66	2/433	.00	.11	a<b<c
			도피동기	6.85	2/433	.00	.03	a · b<c
			표현동기	4.23	2/433	.02	.02	a<b
		인터넷 중독	성적동기	2.10	2/433	.12	.01	
			가상세계지향	18.27	2/433	.00	.08	a · b<c
			긍정적 기대	8.33	2/433	.00	.04	a<c
내성 및 몰입	31.67		2/433	.00	.13	a<b<c		
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	21.23		2/433	.00	.09	a<b<c		

주. a=2시간 미만, b=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c=3시간 이상

위수로 나누었을 때,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집단을 2시간 미만 집단(43.8%, N=190),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집단(31.4%, N=136), 3시간

이상 집단(24.7%, N=107)의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인터넷 평균 사용시간에 따른 각 척도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격특성, 부정적 정서, 대학생활적응, 인터넷 사용동기, 인터넷 중독의 하위요인이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소외,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자극추구동기, 숙달동기, 상호작용동기, 정보동기, 집착동기, 도피동기, 표현동기, 성적동기, 가상세계지향, 긍정적 기대, 내성 및 몰입, 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에 대한 인터넷 평균사용시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Wilks의 람다는 .75,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인터넷 평균 사용시간에 따라 각 척도의 하위요인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넷 평균 사용시간에 따른 차이를 개별 종속변수별로 분석하기 위해 단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방성($F=4.45, p>.05$), 상호작용동기($F=3.13, p>.05$), 성적동기($F=2.10, p>.05$)를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요인에 있어서는 신경증($F=4.66, p<.05$), 외향성($F=7.49, p<.01$), 친화성($F=7.97, p<.001$), 성실성($F=12.10, p<.001$)은 인터넷 평균 사용시간별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개방성($F=4.45, p>.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2시간 미만 사용집단에 비해 3시간 이상 사용집단의 신경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3시간 사용집단과 3시간 이상 사용집단에 비해 2시간 미만 사용집단의 성실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부분에서 소외($F=15.86, p<.001$)는 인터넷 평균 사용시간별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3시간 이상 사용집단이 지각하는 소외가 2시간 미만 사용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 정도 역시 학문적 적응($F=5.34, p<.01$), 사회적 적응($F=10.94, p<.001$), 정서적 적응($F=10.47, p<.001$), 신체적 적응($F=8.29, p<.001$), 대학에 대한 애착($F=3.62, p<.05$) 등 모든 하위 요인이 인터넷 평균 사용시간별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하위요인에서 3시간 이상 사용집단은 2시간 미만 사용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인터넷 사용동기에서는 자극추구동기($F=5.20, p<.01$), 숙달동기($F=9.65, p<.001$), 정보동기($F=5.57, p<.01$), 집착동기($F=27.66, p<.001$), 도피동기($F=6.85, p<.01$), 표현동기($F=4.23, p<.05$)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상호작용동기($F=3.13, p>.05$), 성적동기($F=2.10,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후검증 결과 자극추구동기, 숙달동기, 집착동기, 도피동기는 3시간 이상 사용집단이 2시간 미만 사용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정보동기, 표현동기는 2시간 미만 사용집단보다 2-3시간 사용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중독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상세계지향($F=18.27, p<.001$), 긍정적 기대($F=8.33, p<.001$), 내성 및 몰입($F=31.67, p<.001$), 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F=21.23, p<.001$) 등 모든 하위요인에서 2시간 미만 사용집단보다 3시간 이상 사용집단의 중독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각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η^2 에 의하면 내성 및 몰입이 13%로 인터넷 평균 사용시간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집착동기(11%), 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9%), 가상세계지향(8%), 소외(7%) 등의 순이었다.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사용집단과 3시간 이상인 사용집단의 비교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 집단과 3시간 이상인 집단 사이에서 2시간 미만 집단과 2시간 이상

표 11.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2시간 미만			3시간 이상		
		B(SE)	β	t	B(SE)	β	t
성격특성	신경증	-.03(.05)	-.04	-.67	-.02(.07)	-.03	-.32
	외향성	-.06(.05)	-.08	-1.31	.02(.05)	.02	.31
	개방성	-.10(.06)	-.10	-1.73	-.01(.07)	-.01	-.10
	친화성	.04(.06)	.04	.64	.03(.07)	.04	.44
	성실성	-.06(.05)	-.06	-1.12	-.04(.07)	-.05	-.61
부정적 정서	소외	-.09(.05)	-.11	-1.88	.01(.06)	.01	.12
대학생활 적응	학문적 적응	.02(.04)	.03	.47	.05(.06)	.06	.81
	사회적 적응	.00(.05)	.00	.01	.12(.06)	.15	1.96
	정서적 적응	-.13(.05)	-.20	-2.50*	-.17(.07)	-.25	-2.53*
	신체적 적응	.09(.05)	.11	1.80	-.11(.07)	-.12	-1.58
	대학에 대한 애착	-.02(.04)	-.04	-.59	-.10(.06)	-.15	-1.78
인터넷 사용동기	자극추구동기	.02(.07)	.03	.35	.10(.09)	.13	1.12
	숙달동기	.03(.04)	.05	.68	.01(.06)	.02	.25
	상호작용동기	-.02(.05)	-.03	-.44	-.04(.07)	-.04	-.50
	정보동기	.09(.05)	.10	1.76	-.04(.07)	-.04	-.59
	집착동기	.41(.07)	.46	6.21***	.42(.07)	.52	6.07***
	도피동기	.06(.07)	.07	.80	.09(.08)	.11	1.17
	표현동기	.06(.05)	.09	1.18	-.03(.07)	-.04	-.45
	성적동기	.26(.06)	.28	4.18***	.07(.08)	.07	.87
<i>F</i>		15.82***			12.28***		
<i>R</i> ²		.65			.73		

주. * $p < .05$, *** $p < .001$

3시간 미만 집단,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집단과 3시간 이상 집단 간에 비하여 보다 많은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 집단과 3시간 이상인 두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대학생 집단과 3시간 이상인 대학생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 부정적 정서, 대학생활적응 정도, 인터넷 사용동기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2시간 미만 집단에서 성격 특성, 부정적 정서, 대학생활적응 정도, 인터넷 사용동기가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모형의 F 통계값은 15.82($p=.00$, $R^2=.65$)로 유의수준 .05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변화량의 65%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유의수준 .05에서 인터넷 중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 적응변인은 정서적 적응($\beta=-.20$, $p<.05$)이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동기 중에서는 집착동기($\beta=.46$, $p<.001$)와 성적동기($\beta=.28$,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활에 적응함에 있어 정서적인 적응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집착할수록, 인터넷을 통해 성과 관련된 자극을 찾을수록 인터넷에 더 많이 중독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인터넷 평균 사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대학생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은 성격특성, 부정적 정서, 대학생활적응 정도, 인터넷 사용동기에 의해 약

7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형의 F 통계값은 12.28($p=.00$, $R^2=.73$)로 유의수준 .05에서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유의수준 .05에서 인터넷 중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 적응변인은 정서적 적응($\beta=-.25$, $p<.05$)이었고, 인터넷 사용동기는 집착동기($\beta=.52$,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정서적인 적응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터넷 사용에 집착할수록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인터넷 중독군의 치료적 개입에 대한 관심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 시점에서 인터넷 중독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일반 대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돕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을 위한 인터넷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경남지역 대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실태를 파악한 후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성격특성, 소외, 대학생활 적응, 인터넷 사용동기가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집단과 3시간 이상인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인터넷 중독수준과 관련하여 잠재적 위험 사용자 I 군이 가장 많았고, 일반 사용자군이 잠재적 위험 사용자 II 군, 고위험 사용자군보다 높게 나타나 대학생들이 상담이나 전문적 치료를 받을 만큼의 인터넷 중독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집단은 2시간 미만인 집단에 비해 신경증과 소외 정도는 높았고,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은 낮았으며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낮고 인터넷 중독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인터넷 중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적응, 인터넷 사용동기의 집착동기였으며 성적동기는 2시간 미만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 시작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가 전체 비율의 3분의 2(71.6%)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시기에 인터넷 사용욕구를 조절하는 방법과 건전한 인터넷 사용습관을 만들 수 있는 상담과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시기는 인지발달단계상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사춘기가 시작되며 정체감의 형성이 주요 과업이 되는 시기이다. 추상적 사고가 시작되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몰두하게 됨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매우 클 것이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인터넷에 몰두하게

되고, 이러한 습관이 대학생 시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 욕구를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시키기는 것이 필요 하겠다. 이러한 학습은 부모의 인터넷 사용제한 조치 등으로 이루어 질 수 없고 보다 체계적인 예방교육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장재홍과 김광현(2009)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위해 정규 교과과정에 인터넷 사용습관과 자기 욕구 다스리기 등을 편성하여 절제, 극기, 네티켓, 대인관계 측면이 인터넷 사용과 함께 다루어지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shutdown)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두산백과, 2013).

둘째, 대학생들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31.6%로 가장 많았고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31.4%로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및 의사소통 불안이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정화(2006), 장동균(2002)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를 토대로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을 통해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이 자율적인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인터넷에 중독될 잠재성은 있으나 인터넷 중독을 의심할 정도로 심각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들의 최장 인터넷 연속사용시간을 알아본 결과 인터넷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시간 이상 15시간미만(28.4%), 0시간 이상 5시간 미만(20.1%) 순이었다. 인터넷을 한 자리에서 장시간동안 사용하는 이유는 인터넷을 대체하는 적절한 여가생활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과제를 수행하거나 정보를 검색하는 것과 같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할 때보다 어떠한 목적 없이 단순히 시간 때우기용이나 재미를 추구하기 위하여 인터넷이 사용될 때 사용시간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극을 추구하거나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올바른 여가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가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신재식, 2009). 그러나 인터넷은 실재하는 것이 아닌 가상공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현실에서 신체적 활동이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문화 여건의 조성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이용, 동아리 활동, 봉사단체 참여와 같은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와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지원이 활성화된다면 학생들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이 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화, 연극, 전시 관람과 같은 문화생활과 같은 건전한 여가문화의 활용은 과도한 인터넷 이용을 줄임으로써 인터넷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터넷을 어디에서 주로 하는지 사용장소를 살펴본 결과 집(81.8%), 학교/아르바이트 장소(12.7%), PC방(3.7%), 기타(1.2%), 공공시설(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동균(2002), 신재식(2009), 이현숙(2009)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컴퓨터와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1인 1PC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 PC 보급률이 증가하였고, 자신의 PC에 대한 사용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공간이라고 여기는 집에서 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나 아르바이트 장소, 공공시설에 비해 집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 상대적으로 눈치를 보게 될 일이 적으며 그에 따른 통제권을 자신이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시간에 대한 스스로의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생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해 부모님의 개입이나 통제보다도 스스로의 통제, 조절능력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의 경우 정신적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장시간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일정 시간 후 휴식을 취하며 신체와 정신을 전환하고, 자신이 인터넷을 사용한 시간을 기록함으로써 개인의 인터넷 사용패턴을 분석하여 조절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정도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 I 군이 가장 많았고,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 II 군, 고위험 사용자군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 II 군의 경우 분류 및 기준점수(표 2)에 의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인터넷에 중독되어있다고 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 II

군, 고위험 사용자군의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아 상담 및 집중치료가 필요한 수준을 의미한다.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는 곧 인터넷 중독에 이르게 되는 잠재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부차원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독의 경우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대해 잠재적 위험에 속한 집단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박순영(2013)의 연구에서 대학생 인터넷 중독률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중독군이 전체의 81.4%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중독 사업은 상담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예방사업조차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터넷 중독군 전체에서 단 1.5%만이 전문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전문적 도움의 효과가 대부분 보통이거나 불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대상자 수효가 다소 낮을 수는 있으나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대한 내용 중 성인, 특히 대학생에 대한 예방 및 해소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추가하고 확대하고 홍보하여 대학생이 인터넷 중독에 이르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인터넷 중독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내성 및 몰입이 13%로 인터넷 평균 사용시간

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집착동기(11%), 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9%), 가상세계지향(8%), 소외(7%), 성실성(5%), 사회적 적응(5%), 정서적 적응(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인터넷 중독의 하위변인이 모두 유의하였고, 설명량도 4~13%인 것을 보아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의 차이가 인터넷 중독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되고,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게 되는 인터넷 중독으로의 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현실세계보다는 가상세계를 실제로 여기고 사이버공간 안에서의 자신이 오히려 더 나다운 자신이 되며, 현실세계에서 점차 멀어져 고립감과 같은 소외감을 느끼며 사회적, 정서적 적응 또한 낮아지게 되는 과정을 잘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은구, 2007).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터넷은 자신의 의사표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목적으로 쉽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잉사용할 경우에는 사회활동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이 속한 사회에 대한 적응 능력을 감소시킨다(유순옥, 2002; 황수정, 2000; Kraut et al., 1998). 또한 김기태(2000)는 인터넷 중독자의 경우 실제보다는 가상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익숙하기 때문에 실제 인간관계 및 사회관계를 통해서 습득해야 할 다양한 가치 및 규범 형성이 미흡해지고, 결과적으로 적응 능력이 감소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인터넷 중독 중에서도 가상세계에 몰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제생활에서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해나가기 위한 동기를 북돋우고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켜줄 필요가 있으며, 대학 내에서도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사회적 적응을 위한 집단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는 인터넷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눈 후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사용집단과 3시간 이상인 사용집단의 성격특성, 부정적 정서, 대학생활적응 정도, 인터넷 중독의 하위요인 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개방성, 상호작용동기, 성적동기를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시간 미만 집단에 비해 3시간 이상 집단에서 신경증과 소외 정도는 높은 반면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 5요인 모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금화(2010), Peter와 Malesky(2008)와는 동일한 결과였고 윤혜연(2008)의 연구와는 개방성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결과였으며, 소외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다는 이형하(2003), 황혜리와 류수정(2008)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였다. 특히 대학생활적응 정도의 경우 5개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든 하위요인에서 3시간 이상 사용집단은 2시간 미만 사용집단보다 낮은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 중독의 4가지 하위요인에서도 유의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든 하위요인에서 2시간 미만 사용집단보다 3시간 이상 사용집단의 중독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박준혁, 김정범, 류설영, 2006; 백대

준, 2002; 윤혜연, 2008; 임영희, 2003). 즉 인터넷 사용시간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은 낮으며, 인터넷 중독수준은 높아진다. 따라서 학업적인 이유로 대학생들이 인터넷 사용을 해야만 한다 할지라도 적절한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대학생들에게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업 목적 이외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동기를 정확히 아는 것은, 대학생들이 '무엇에' 중독되는지, '무엇 때문에' 중독되는지를 알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인터넷 과다사용 유형에 따른 적절한 치료적 개입도 중요하지만, 일반 대학생들이 자신의 인터넷 사용 동기를 알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조절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사용동기의 경우 집단 별로 성적동기와 상호작용동기를 제외한 6가지 동기들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경험동기에 해당하는 자극추구동기, 숙달동기와 집착동기 및 도피동기로 이루어진 중독동기가 높게 나타났고, 2시간 미만 집단에서는 소통동기에 해당되는 정보동기와 표현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인터넷으로 자극을 얻거나 인터넷을 경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동기, 인터넷을 도피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동기 및 인터넷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없음이 반영된 동기가 높으며, 인터넷 사용시간이 적을수록 인터넷을 매개로 서로 간에 소통하고자 하

는 동기가 높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대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동기를 고려하고 파악하는 과정과 더불어 개인의 성격특성, 정서, 대학생활 적응정도는 고려하는 작업은 대학 내의 인터넷 중독 예방 단기 캠페인이나 상담, 치료적 개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덟째,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인터넷 사용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하위변인은 대학생활적응 정도에서 정서적 적응, 인터넷 사용동기에서는 집착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학문적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보다 친밀하고 폭넓은 대인관계와 집단 활동을 통한 대인적응력이나 사회적응력, 문제해결기술 등을 익힐 수 있는 장으로,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획득하고 자존감과 정서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율성이 개인의 성격 특성과 학업 성취 결과, 대인관계 문제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여 인터넷에 몰두 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생생활연구소 등을 통해 인터넷에 중독되기 전에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나 고민을 해소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집착을 하는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 대신 다른 관심분야를 찾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자기조절훈련, 사회기술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도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하루 평균 2시간 미만 인터넷 사용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하위변인은 대학생활적응 정도에서 정서적 적응, 인터넷 사용동기 중에서는 집착동기, 성적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적응과 집착동기는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인터넷 사용 집단의 결과와 같았지만 성적동기가 추가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인터넷 사용동기에서 성적 동기는 인터넷을 통해 성과 관련된 자극을 찾아 성적 각성을 얻으려는 동기를 말하는 것이다(곽웅신, 2006). 이는 감각 추구, 쾌의 추구, 외로움, 성적 만족, 대리만족 등이 인터넷 사용 동기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장재홍, 2004; 천명재, 김창대, 2005; 박성민, 2010). 본 연구 결과에서는 3시간 이상 인터넷 사용 집단에 비해 오히려 단시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는 집단에서 성적동기가 인터넷 중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시간 인터넷 사용자가 장시간 인터넷 사용자에 비해 성적동기가 더 큰 사용동기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한 다각도의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이미 개발된 한 척도만을 활용하였다. 대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학생에게 초점을 맞춘 인터넷 사용동기 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보다 세분화된 인터넷 사용동기를 파악, 대처함으로써 인터넷 관련 문제를 보이는 대학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모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인터넷 사용동기가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이루어진다는 이론의 바탕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류춘열, 2004; 김현진, 2007). 대학생들은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검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면 일부분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원하지 않는 미디어 전체에 노출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욕구, 사용유형 변인 등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인터넷 사용모형을 탐색해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 및 중독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을 빈도와 퍼센트를 기준으로 삼분위수로 나누어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 및 인터넷 중독을 구분하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통해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대학생생활척도의 일부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가 선행연구와 달리 낮게 나왔기에 연구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유진 (2001). 인터넷 중독 집단의 성격 특성 및 자기개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고유진, 채규만 (2004). 인터넷 중독 집단의 성격특성과 자기 개념: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365-366.
- 곽웅신 (2006). 인터넷 사용 동기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구혜숙 (1994). 학교적응과 비학문간 자아개념 및 학업성적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김광웅, 유미숙, 이지향 (2004). 인터넷 중독 여부에 따른 온라인대인관계 성향과 대면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아동학회지, 25(2), 109-120.
- 김기태 (2000). 인터넷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안연구: 인터넷 미디어교육 시안제시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선우 (2002).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소외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현진 (2002).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김현진 (2007). 대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모형탐색연구. 교육논총 27(2), 1-22.
- 두산백과 (2013).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11120001248814
- 류춘열 (2004). 커뮤니케이션 이용유형과 미디어 이용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17, 241-255.
- 박성민 (2010). 인터넷 이용동기, 우울이 대학생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박순영 (2013).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박정화 (2006).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및 의사소통 불안이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준혁, 김정범, 류설영 (2006). 대학생에서 기질성격, 스트레스 반응과 인터넷 중독경향과의 관계, 생물치료정신의학 12(1), 29-

- 38.
- 박지선 (2010). 대학생 인터넷 사용과 사회 적응 및 대인 적응과의 관계: 상담에서의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2), 357-367.
- 백대준 (2002).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학교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서미아 (2007). 일개 중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또래애착 정도, 학교생활 대처와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6(1), 5-13.
- 성태제 (2011). 알기 쉬운 통계분석. 학지사. 226.
- 손정락, 강희양 (2007). 인터넷 및 게임 중독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733-744.
- 신수정 (2007).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 및 문제행동.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신재식 (2009).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의사소통 불안에 관한 일연구. 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 양병화 (2011).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13-214.
- 오원이, 이순목, 반재천, 이형초, 최윤경, 이순영 (2005). 성인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유순옥 (2002).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 적응력과의 관계.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혜연 (2008). NEO 아동성격검사에 따른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인터넷 중독 성향,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금화 (2010).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가족의 기능적 특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이선애 (2004).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과 사회적 적응능력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소영 (2000). 게임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의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영란 (2006). 상담자의 소진과 5요인 성격특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윤정 (1999). 지방출신 서울 유학생의 대학생 생활 적응과 진로계획.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정윤, 이명화 (2003). 음란물을 자주 접촉하는 청소년의 성 및 심리사회적 특성. 청소년상담연구, 11(1), 32-41.
- 이진성 (2009).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인터넷 이용 동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현숙 (2009).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성태도 유형 및 성행동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 이형하 (2003). 인터넷 중독정도가 도서지역 청소년의 심리정서, 행동, 학업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4), 263-288.
- 이혜경 (2010). 병리적 인터넷 사용 하위유형과 성격특성.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이흥표 (2002).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동기 및 위험감수 성향과 병적 도박의 관계. 박사학위 청구논문, 고려대학교.
- 임영희 (2003).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적응 및 민주시민의식과의 관계. 석사학

- 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은미, 박승민, 장선숙 (2007).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 조절과정 분석-과다사용 변화집단과 지속집단의 체험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8(3), 819-838.
- 임혜숙 (2004). 청소년 인터넷 중독자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동균 (2002). 대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재홍 (2004).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사용욕구를 매개로. *상담학연구* 5(1), 113-128.
- 장재홍, 김광현 (2009).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6(4), 157-183.
- 천명재, 김창대 (2005). 인터넷 이용동기 프로파일에 의한 인터넷 중독자 분류 연구. *상담학연구* 6(1), 211-227.
- 최경희 (2004). 남자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및 게임중독과 16PF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 최은구 (2007).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충동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대학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한기홍 (2008). 인터넷 중독에 영향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 황수정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지 지각 및 사회적응력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혜리, 류수정 (2008). 기독교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성향과 심리사회적 특성과의 관계-자기 통제력,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효능감, 외로움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 학회지*, 11, 321-346.
- Aa, Niels van der., Overbeek, Geertjan, Engels, Rutger C. M. E., Scholte, Ron H. J., Meerkerk, Gert-Jan., Regina J. J. M., & Eijnden, Van den. (2008). Daily and Compulsive Internet Use and Well-Being in Adolscence: A Diathesis-Stress Model Based on Big Five Personality Traits. *Journal Youth Adolscence*, 38(6), 765-776. DOI 10.1007/s10965-008-9298-3.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1), 179-189.
- Davis, R. A. (2001). A cognitive-behavior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7, 187-195.
-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supportgp.html>.
- Guadagno, Rosanna E., Okdie, Bradley M. & Eno, Cassie A. (2008). Who blogs? Personality predictors of blogg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4, 1993-2004.
- Korgaonkar, P. K., & Wolin, L. D. (1999). A multivariate analysis of webusage.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1, 53-68.
- Kraut, R, Patterson, M, Lundmark, V., Kiesler, S.,

- Mukopadhyay, T., & W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and reduces social involmental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 1017-1031.
- Leung, L. (2003). Impacts of net-generation attributes, seductive properties of the Internet, and gratifications-obtained on Internet use. *Telematics & Informatics*, 20, 107-129.
- Papacharissi, Z., & Rubin, A. M. (2000). Predictors of internet use.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44, 175-196.
- Peter, C. S., Malesky, A. (2008). Problematic usage among highly-engaged players of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s. *Cyberpsychology & behavior*, 11(4), pp.481-484.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3), 237-249.
- 원 고 접 수 일 : 2013. 02. 02.
수정원고접수일 : 2013. 04. 15.
최종게재결정일 : 2013. 04. 19.

Understanding for internet use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personality, emotion, adjustment,
internet use motivation, addiction

Jiyeon Park

Nanmee Yang

Mikyong So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eoul Women's Universit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internet use pattern of college students and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with personality trait, negative emotion, college life adjustment, internet use motivation and internet addiction according to average internet use time. Specifically,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in order to find out factors which have influence over internet addiction; one group was use the internet for under 2 hours a day, and another group was use the internet for more than 3 hours a day.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433 college students and the internet use motivation scale, internet addiction scale for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trait scale of 5 factors, alienation scale and college life adjustment scale were used for this study. A multi-variate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find out any difference in sub-factors of respective scale as per group while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compare variables affecting internet addiction.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Degree of college life adjustment was higher in the group of less than 2 hours while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neurosis and alienation was higher in the group of more than 3 hours. Both groups showed that factors meaningfully influencing internet addiction were the emotional adaptation, a sub-factor of college life adjustment and the obsession motivation, that of internet use motivation while the group of less than 2 hours revealed that sexual motivation was the only meaningfully factor. This study showed to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education of internet addiction

Key words : college students, internet addiction, internet use motivation, personality trait, emotion, college life adjustment